

就 任 辞



(委員長 金明國 教授)

올해도 온누리에 어김없이 봄이 찾아왔습니다.

현대사회는 고도로 세분화, 전문화, 조직화 되어가고 있으며 지식과 기술도 하루가 다르게 이틀이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학술위원회의 임무는 막중하며 급속하게 변화하는 학문의 정보를 수시로 입수하여 3,500회원에게 골고루 심어줌으로써 발전된 지식과 기술을 사회의 전문인으로서 활용하도록 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너무도 부족한 본인이 이같은 중책을 잠시나마 이끌어 나가게 되는데 대해 영광으로 생각하며 한편 무거운 책임감을 절실하게 느끼는 바입니다.

그동안 金圭植 전위원장을 비롯하여 역대 위원장께서 힘쓰시고 노력해오신 결과 이제 학술위원회는 기초가 다져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역대 학술위원장께서 이룩해 놓으신 찬연한 업적과 과업을 이어받아, 굳어진 기반위에 열심히 탑을 쌓아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정관에 있는 7 가지의 학술위원회의 임무에 대하여 우선 전국 방방곡곡에 계신 여러 회원의 의견을 듣고 집약하면서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학 교육은 平生教育(Life-long education)이라고 합니다. 사회생활을 계속하는날까지 평생에 걸쳐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언제 어디서나 발전된 지식과 기술을 사회에서 항상 활용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 자리가 한 개인을 위해 내준 자리가 아니라, 치과계를 위해 일할 기회로 준 자리임을 항상 명심하여, 능력이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3,500 회원의 열렬한 참여와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1980년 4 월

대한치과의사협회
학술위원회
위원장 김 명 국